보육인광장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Magazine

2018. Spring+Summer

Vol. 05



육아종합지원센터

CONTENTS

2018. Spring+Summer
Vol. 05

발간사

03 '봄이 오는 길목'에서 그늘이 되어주던 행복한 정경을 떠올리며

보육 브리핑

04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주요 내용

08 보육교직원, 「보육사업안내」를 읽다
– 201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주요내용

보육 이슈

11 콕! 집어 알려주는 「2018 평가인증 & 부모모니터링 & 열린어린이집」

14 우리 어린이집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보육 플러스

16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얼마나 알고 있나요?

20 체코의 유아·보육기관 'Mateřská škola'을 가다

22 아동학대예방에서 '아동권리존중'으로, 보육교사 아동인권을 마주하다

보육인 뜰

24 작지만 확실한 행복(小確幸), 그곳 어린이집
– '2018 우리들의 보육 이야기' 공모전 수상작

센터 소식

육아종합지원센터 매거진 **[보육인 광장]**

발 행 일 2018년 4월
공동발행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충북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충남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대표번호 : 1577-075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연결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그늘이 되어주던 행복한 정경을 떠올리며

마 미 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마미정입니다.

신입 원아들과 마주한 3월은 우리 선생님들의 즐거운 인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과의 헤어짐보다 점점 선생님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에 행복한 자부심도 느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봄의 길목에서 아이들과 하루 일과를 함께 하면서 더 보람찬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겠지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아이들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울 것이라 믿으면서 제가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어린이집에서 마주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깥놀이 시간에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나무 막대기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그림 그리기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점점 그늘이었던 모래밭에 햇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맨 가장자리에 있던 아이의 머리에 햇빛이 비칠 것 같았는지 선생님은 조용히 다가가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의식할까봐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지요.
아이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 주는 것을 그 때도 나중에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아이의 그늘이 되어 주던 선생님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아이가 그림 그리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정말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바깥놀이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과 들어갈 때 선생님께 다가가 "아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돌아온 한 마디는 "어머, 보셨어요? 아이가 너무 열중하는데 햇빛이 비치면 방해될 것 같아서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겸연쩍게 웃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손을 씻으러 들어가셨지요.
선생님이 그 날 아이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면서 그림에 대한 몰입을 지켜준 시간은 분명 아이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했으리라 믿습니다. 빙긋이 웃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던 선생님의 뒷모습은 지금도 싱그러운 봄날 바깥놀이 하는 아이들을 보면 떠오르는 행복한 정경입니다.

아이들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채우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번 다가오는 봄이지만 어제의 봄과 오늘의 봄이 다르듯, 여러분과 마주하는 아이들의 하루는 여러분의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 매일 다르게 의미를 키울 것입니다. 노력에 비해 아이들이 변함이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정말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하고 있을 때 마음 한구석에 찡한 느낌이 들면서 아이들의 시간도, 그들과 마주한 여러분의 시간도 의미 있게 흘러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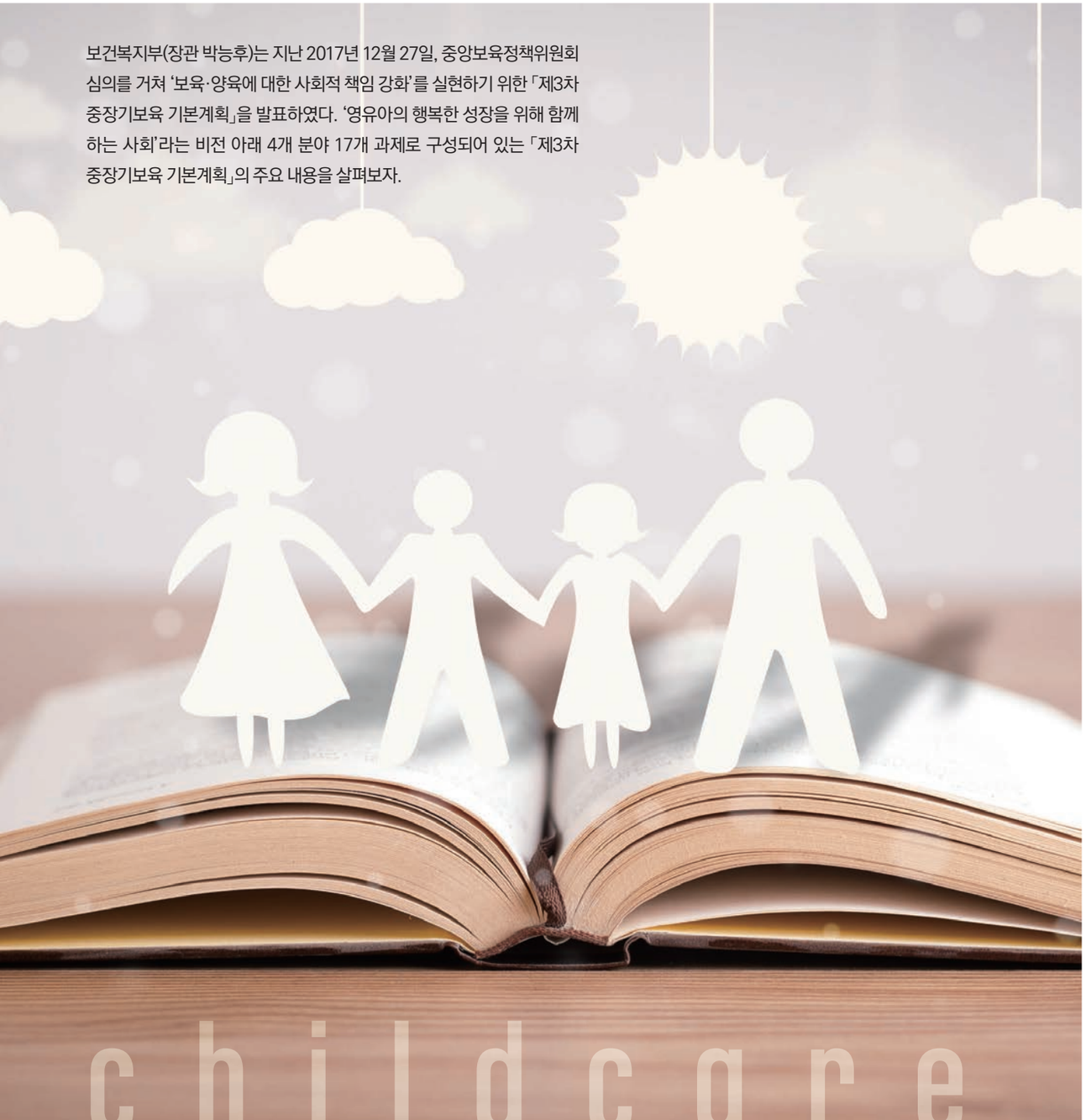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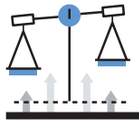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보육의 공공성 강화

01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 13%에서 '22년 40%까지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전환 활성을 위해 매입지원액을 올릴 예정이다.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지원 단가 등 지원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02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전반에 걸쳐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개경쟁을 활성화하여 우수 위탁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공립의 취약보육(시간연장, 장애통합보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민간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0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확대하여 의무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04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유치원의 원감과 같은 중간관리직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유치원 원장은 2급 정교사 취득 후 최소 9년 필요
  어린이집 원장은 2급 보육교사 취득 후 최소 6년(가정어린이집은 4년) 필요



보육체계 개편

0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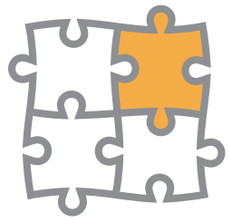
0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보육과정, 시설 규모·유형, 지역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18년에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적정 보육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표준보육비용: 영유아에게 일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최근의 정부 계측은 '14년에 이뤄짐

03 보육과정 개편

영유아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개편이 진행될 계획('18년~교육부·복지부)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부담 최소화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0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재직교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관리를 강화하여 교사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각 시도별로 위임된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 기관을 두어 보수교육의 지역별·기관별 편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0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현장수요를 고려하여 확대하고, 보육체계 개편과 함께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0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탄력보육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토록 하고, 어린이집의 영유아반 구성 기준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0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집 평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 수준별 사후관리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의 상향을 유도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관과 안전컨설팅을 연 100개소 이상 실시하고,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통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

0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02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3 취약보육 지원 개선

장애아·다문화 아동 등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취약보육 관련 실태조사('18년) 등을 거쳐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눈에 살펴볼까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비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목표 및 전략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1.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2.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4.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3. 보육과정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2.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3. 취약보육 지원 개선

실행 기반: • 지원기관 기능 개편 • 민·관 협업 확대 • 전산시스템 개편

중장기 기본계획 변천 내용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새싹플랜, '06~'08)	제1차 계획보완 (아이사랑플랜, '09~'12)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13~'17)
비전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전략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양질의 보육서비스	• 영유아중심 • 국가책임제 보육 • 신뢰회복	• 건강한 성장 발달 • 국가책임 실현 • 참여와 신뢰 증진
추진과제	1. 공보육 기반조성 2. 부모 육아부담 경감 3.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4.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5.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1.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2. 수요자 맞춤 지원 3. 보육시설 질제고 및 균형 배치 4.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5. 전담체계 효율화 6.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2.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3.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보육교직원, 「보육사업안내」를 읽다

201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주요내용

2018년은 제3차 중장기 보육정책이 반영되어 시행되는 해로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기준 내용이 변경되었고, 반별 정원 탄력편성 규정도 개정되었다. 2018년 보육사업안내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어린이집 운영의 기틀을 다져보자.

어린이집이 1~3층인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어린이집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18.6.13.시행). 이는 어린이집이 1~3층인 경우 모두 해당하며,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2018 보육사업안내 p.48~49).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항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 등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로, 어린이집은 건물(1~3층) 구획된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만약 해당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보육 정원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사실 설치는 '18년 6월 13일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 시설부터 적용된다(2018 보육사업안내 p.39).

-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직장어린이집 및 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종류·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외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탄력보육 허용사유 제한 및 허용요건 강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 2018년부터는 신학기에만 가능하도록 그 시기와 사유가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기본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 탄력편성 가능인원 안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2018 보육사업안내 p.67~68).

구분	2017년	2018년
허용사유	• 제한없음	• 재원아동 승급 시 반별 정원 초과(3월) • 반 통폐합 시 잔류아동이 반별 정원 초과(3~5월)
허용요건	• 해당반 교사 수당 지급	• 탄력보육에 따른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 해당반 교사 수당 지급 (만1세반 116,400원 /만2세반 96,300원/ 만3~5세반 78,000원 이상)
허용범위	• 1세반 +1명/ 2세반 +2명 • 3~5세반 +3명	• 현행 유지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 명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보존하여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어린이집 문서는 전자적 문서 방식의 보존도 인정되므로 아래의 보존 연한을 참고하여 문서를 관리할 수 있다(2018 보육사업안내 p.78).

구분	보존기간
• 기관 및 단체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인사기록카드 등)	준영구
•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10년
• 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영유아 생활기록부	5년
•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서류(운영일지, 이용신청자명부, 보육일지 등)	3년
• 기타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1년

어린이집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그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조치 사항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어린이집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것을 개정하여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다(2018 보육사업안내 p.100).

☞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

☞ 의사 진단 결과 감염병 확진 또는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 조치

* 가정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이용문의: 1577-2514)

※ 시군구청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필요한 감염병: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 감염병

신규채용 보육교직원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보육교직원은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결핵 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하다(2018 보육사업안내 p.101).

Q&A로 알아보는 보육사업안내

Q — 어린이집의 휴지 및 폐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구비서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휴지기간은 1년 이내이며, 어린이집을 철거한 경우는 폐지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세요.
①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②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③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 시)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 시) ※2018 보육사업안내 p.33

Q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2018.4.24. 시행)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가정어린이집 인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8 보육사업안내 p.16

Q — 종일반 영유아도 반드시 어린이집 희망 등·하원시간을 조사해야 하나요?

A — 어린이집은 영·유아반 또는 종일반·맞춤반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어린이집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신청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① 시간대별 교사배치 ②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③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서면 수요조사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반영합니다.
※2018 보육사업안내 p.75

Q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모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에는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가 승인되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보육사업안내 p.174~175

Q — 201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A — 원장 및 보육교사는 매 3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1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만 2년이 경과한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19년 12월까지 받아야 합니다. 2019년에도 받지 않는다면 1회 위반, 2020년에도 받지 않는다면 2회 위반, 2021년에도 받지 않는다면 3회 위반에 해당됩니다. ※2018 보육사업안내 p.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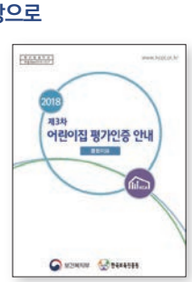
콕! 집어 알려주는 2018 「평가인증 & 부모모니터링 & 열린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뿐만 아니라 부모가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부모모니터링'이나 '열린어린이집' 등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여러 사업은 때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어린이집 현장의 업무부담을 과중시키기도 하지만, 영유아를 위해 그만큼 중요한 지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라고 했던가! 「2018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 부모모니터링 & 열린어린이집 사업」에서 꼭 체크해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일지는 실제 운영일과를 기록하는 것, 등·하원시간 수요조사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 현장평가부터 통합지표를 적용한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는 확인점검, 확인방문,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에도 통합지표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평가인증 통합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제 필수! 특히 통합지표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1영역인 '보육과정과 상호작용'으로 그만큼 보육교사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2018년 평가인증의 중요한 체크사항과 주의사항을 알고 꼼꼼하게 준비해 보자. 평가는 아주 소소한 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체 / 크 / 포 / 인 / 트

- 자유선택활동(자유놀이)시간과 바깥놀이시간 계획 시, 정리정돈과 화장실 가기, 손 씻기는 별도 전이시간으로 계획하기
- 영유아 활동결과물은 두 가지(종류) 이상 수집하기
- 양호공간에는 아픈 영유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간이침대(매트) 등 마련하기
- 예·결산서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반드시 공개하기
- 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 수요조사 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을 반드시 안내하기
- 소화기를 각 층마다 구비하기
-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1~3층 어린이집, 4층 이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에는 상해 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 최소 3가지 이상 포함하기

평가인증! 이것만은 주의하자.

☞ 보육일지는 보육교사가 실제 운영한 일과와 보육활동, 그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 월간잡지 등의 보육일지를 그대로 복사·사용하여 평가결과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주의!

☞ 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는 반드시 종일반 영유아, 맞춤반 영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누락된 영유아가 없는지 점검하기(서면으로 보관)

☞ 비상약품에는 반드시 의약품 포함하기. 외부활동용 비상약품도 별도 구비하고 견학, 산책 등 외부활동 시 실제 지참

☞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연 1회 교사별로 반드시 원장이 실시

부모 모니터링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개선, 총 25개 지표로 유사·중복지표 조정



2013년부터 시작된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안전, 급식, 위생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평가인증이나 열린어린이집과 달리 해마다 시군구청에서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통보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특히 잘 준비해야 한다. 2018년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점검방식이 제3차 평가인증과 동일하게 등급제로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유사·중복지표를 통합 조정하여 30개 지표에서 25개 지표로 개선하고 통합지표와 확인내용 및 평정기준을 통일하여 현장부담을 완화하였다.

체/크/포/인/트

● 운영관련

- ✔ 부모모니터링시, '급식시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변경됨(하루 1개소)
  시작시간 09:30~10:00, 종료시간 12:30~13:00
  ☞ 기존에는 하루 2개소 방문이 가능하여 오후 간식시간으로 급식관리 평정이 진행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점심 급식시간을 모니터링해야 함
- ✔ 부모단원은 '급식·위생관리'영역, 전문가는 '건강·안전관리'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실시
- ✔ 평정방식이 '우수, 양호, 개선필요'의 등급제로 변경
  ☞ 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Y/N) 개수로 모니터링 결과 산정

● 지표관련

- ✔ (1-2)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의 구체적인 관리수칙, 보육교직원의 숙지 및 실천, 보호자에게 안내하기 등으로 세분화됨
- ✔ (1-4) 비상약품 용도별로 구비하여 관리하기 확대
  ☞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고,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
- ✔ (1-5) 투약의뢰 절차 준수 신설
  ☞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하고, 부모에게 보고하기
- ✔ (2-3)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및 소방훈련 월 1회 이상 실시 추가

2017년의 경우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총 24,221개소(전체 60.2%)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부모모니터링은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이 중 부모니터링 우선 선정 대상과 제외 대상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모니터링 우선 선정 대상

-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5~'17)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 평가인증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부모모니터링 제외 대상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2017년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



열린 어린이집

우수프로그램과 지자체 자체 선정 배점 확대, 현장부담 완화를 위한 서류 간소화



지난 2015년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사업은 2017년부터 열린어린이집의 개념과 지정유형 및 기준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에는 지자체형과 우수형으로 나누어 열린어린이집이 지정되었으며, 지자체형 총 1,859개소 중에서 100개소가 보건복지부 우수형으로 지정되었다.

열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형태로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에는 열린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육성·운영을 위한 과정·절차 배점을 줄이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배점을 높였으며, 현장부담 완화를 위한 확인서류 간소화 및 우수프로그램의 제출분량을 제한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 반면 인센티브 및 운영관리는 강화되어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이 지자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체/크/포/인/트

변경 전(2017년)	변경 후(2018년)
✔ 신설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한하여 우수형 선정
✔ 다양성(10점)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5점 – 지역사회 연계활동 5점 ✔ 우수프로그램/ 지자체 자체선정(10점)	✔ 다양성(5점)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점 – 지역사회 연계활동 2점 ✔ 우수프로그램 / 지자체 자체선정(15점)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부모 개별상담 자료 → 서류 제출 ✔ 우수프로그램 제출 분량 및 형식 제한 없음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부모 개별상담 자료 → 현장 확인 ✔ 우수프로그램 → 제출형식에 맞추어 15쪽 내로 제한
✔ 공간개방성: 복도 창과 보육실 문 창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7점	✔ 공간개방성: 복도 창과 보육실 문 창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7점 다만, 복도 창이 50% 이상인 경우 가점(1점) 부여 → 8점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연 2회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지역사회범주: 지자체, 소방서, 우체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연 1회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지자체형: 반기별 1회, 우수형: 분기별 1회 지역사회범주: 평가인증 지표(2-4-5) 지역사회연계범주와 동일하게 적용

참고자료는 여기서~ 확인!

평가인증	(재)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 〉 자료실 〉 사업관련 자료 (재)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 참여 〉 온라인교육 * 통합지표 책자 및 교육용 PDF, 관련 서식 및 교육 동영상 등 확인 가능
부모모니터링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공지사항
열린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공지사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 2018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우리 어린이집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의 화재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월 1회 소방대피훈련은 어린이집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소방대피훈련만으로는 안 된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앞으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 어린이집에서 지진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지진 국민행동요령」

지진에 대비하기

☑ **어린이집 내에서 안전을 확보한다.**
- 책상 아래와 같이 보육실 내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공간을 미리 파악해 둔다.
-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해 두고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는다.
-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난로나 위험물은 주의하여 관리한다.

☑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잘 고정한다.**
- 교구장 위에 떨어지면 파손되는 유리병이나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살핀다.

☑ **평소에도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어린이집 가스 및 전기는 점검일자에 맞추어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
- 어린이집 실내·외에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리한다.

☑ **평상시 보육교직원 회의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다.**
- 가스,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 둔다.
- 어린이집 주위의 넓은 공간 등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둔다.
- 비상시 연락할 곳, 응급의료기관 등을 정해 둔다.
- 응급처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혀 둔다.

☑ **영유아와 함께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전체 보육교직원, 영유아와 함께 지진대피훈련을 한다.

☑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보관 장소를 알아 둔다.**
-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용품(비상약품, 손전등, 라디오 등)을 준비하고, 보관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아 둔다.
- 지진발생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기 위치와 사용방법을 알아 둔다.

☑ **지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둔다.**
- 지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기관의 연락처를 알아 둔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을 설치해 둔다.



*행정안전부.「지진 국민행동요령」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지진 발생 시 대피방법

☑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로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나 책상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한다.
- 피할 곳이 없으면 가방, 베개, 방석, 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흔들림이 멈추면, 보육교직원은 가스와 전깃불을 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 **밖으로 나갈 때는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나간다.**
-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다.

☑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대피한다.**
- 담장이나 전봇대는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쉽다.

☑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 주변에 넓은 공간이 없다면 최근에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한다.



지진 발생 후에는

- 지진 발생 후에는 통신기기 사용이 폭주하여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구조요청을 하고, 필요 시 응급처치를 한다.
- 영유아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어린이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
-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지진 정보를 확인한다.

알아두면 필요한 정보

재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
-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 기상청(http://www.kma.go.kr)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
- 응급의료포털(http://www.e-gen.or.kr)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 재난신고 119
- 범죄신고 112
- 민원상담 110

미니 뉴스

모든 어린이집 '석면안전' 관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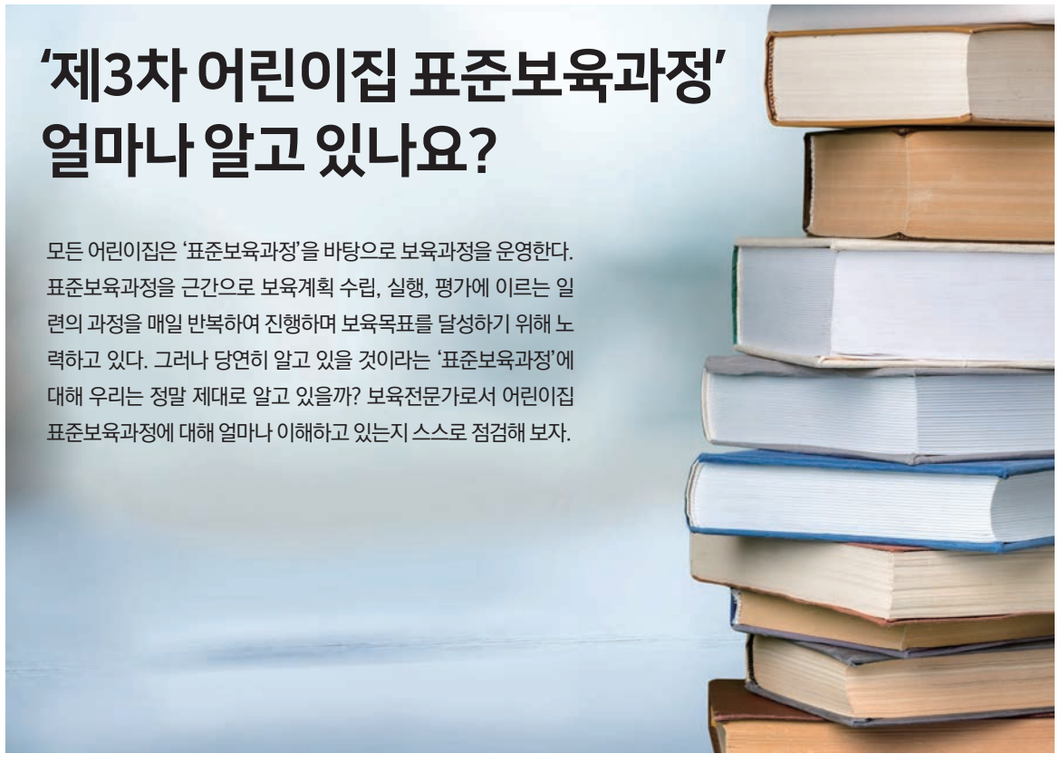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현재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석면조사 및 관련 교육 이수 등의 관리가 내년 5월부터는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의 석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총 2,747개소 중 1,136개소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되어 어린이집 석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환경부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이 올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5월부터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 시스템(http://e.csia.or.kr/index/)' 오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위한 안전교육 시스템'을 오픈하였다. 안전교육 시스템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실시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의 수강신청과 교육이력관리, 수료증 출력, 안전교육 관련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1600-061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얼마나 알고 있나요?



모든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표준보육과정을 근간으로 보육계획 수립, 실행,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매일 반복하여 진행하며 보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보육전문가로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자.

01 표준보육과정 이해하기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의 만0-5세 영유아들에게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2013년 1월 고시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수준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우리 문화에 적합한 내용을 일관성 있고 연계적으로 실천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 전국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편식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영양의 불균형으로 건강을 헤치듯, 영유아가 재미있어 하거나 흥미로운 활동 중심으로만 보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발달의 균형을 잃고 보육목표가 좌초될 수 있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0-1세, 2세 보육과정은 총 6개 영역,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은 총 5개 영역으로 영역별 내용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준보육과정 영역 및 내용범주〉

영역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0-1세, 2세 보육과정	건강하게 생활하기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듣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말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예술적 표현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읽기	더불어 생활하기	예술 감상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쓰기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3-5세 보육과정 (누리과정)	신체인식하기	듣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말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읽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예술 감상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		

보육과정 운영은 「계획-실행-평가」의 순환과정으로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어린이집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 일과운영을 통해 보육과정을 실행하며, 보육과정의 평가와 영유아 평가를 통해 다음 보육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순환과정을 통해 보육과정은 운영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계획 수립, 실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므로 보육교사는 이에 대해 잘 숙지하여야 한다.

평가인증 통합지표에서도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대해 강조하면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하는지(1-1-1),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의 목표 및 내용이 적절하며, 연계성이 있는지(1-1-3),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의 영역을 반영하여 보육활동을 실시하는지(1-1-4)’를 확인하고 있다.

궁금해요 Q&A

Q 보건복지부의 연령별 어린이집 프로그램(2013)에서 제시한 연간 주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에 제작하여 보급한 연령별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주제를 반드시 그대로 선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연간 주제는 전국에서 활용 가능한 보편적인 주제를 제시한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어린이집과 반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혼합반에서 동일한 연령끼리만 같이 놀고 다른 연령끼리는 서로 놀지 않는 경우, 활동을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A 혼합반에서는 연령차나 발달차가 클수록 또래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 동일 연령의 영유아가 모두 같은 활동,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달의 개인차를 인정하여 영유아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에 참여시켜서 자기의 속도로 발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발달차가 많이 날 경우, 모든 연령이 같은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강요하기보다 교사가 어린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보내며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평가는 매 주제가 끝날 때마다 해야 하나요?

A 평가는 보육교사가 계획한 보육과정이 영유아에게 적절한 경험을 제공했는지, 발달에 적합했는지, 표준보육과정의 내용들을 골고루 다루었는지에 대해 평가해봄으로써 이후의 보육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주제가 끝날 경우에 보육교사 스스로가 가급적 주제의 선정이나, 전개방법, 활동 내용 등 보육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태도를 습관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2 표준보육과정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표준보육과정 교육」으로 전문성 높이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그 동안의 표준보육과정 교육자료를 개정하여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제'라는 제목으로 4월부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표준보육과정 교육은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함께 '영아보육프로그램 실제'와 '유아보육프로그램 실제'로 나누어 파트별로 '계획-실행-평가'의 구체적인 보육과정 운영 방법을 안내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표준보육과정 교육'이 타 기관의 교육과 다른 점은 '보육과정 운영의 실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동일한 교육자료와 센터별로 위촉된 우수한 전문가들이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움을 느꼈거나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신청해 보자. 표준보육과정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별로 교육일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일정은 각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제 엿보기〉



PART 1 표준보육과정 이해

1.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란?
2. 표준보육과정 개발 배경
3. 표준보육과정의 법적 근거와 해설
4.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체계
5.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과정 운영
6.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자료집의 구성 및 특징
7.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과정 운영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PART 2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실제**

Ⅰ. 영아보육프로그램 계획
연간, 월간, 주간, 일일, 혼합연령반 보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예시

Ⅱ. 영아보육프로그램 실행
주간, 일일, 혼합연령반 보육계획 실행 시 고려사항, 보육교사 역할, 활동계획안 분석하기

Ⅲ. 영아보육프로그램 평가
보육과정 평가, 영아 평가 예시

PART 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유아보육프로그램 실제**

Ⅰ. 유아보육프로그램 계획
연간, 월간, 주간, 일일, 혼합연령반 보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예시

Ⅱ. 유아보육프로그램 실행
주간, 일일, 혼합연령반 보육계획 실행 시 고려사항, 보육교사 역할, 활동계획안 분석하기

Ⅲ. 유아보육프로그램 평가
보육과정 평가, 유아 평가 예시

참고하세요!

온라인 표준보육과정 교육도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표준보육과정 교육'외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http://lms.educare.or.kr/lms/intro.edu)'에 로그인하면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기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기본교육'은 온라인에서만 수강가능하며, 0-2세 영아 중심의 표준보육과정 교육이다. 온라인 교육형태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 없이 누구나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03 표준보육과정 아카이브

보육과정 웹사이트(http://www.nccw.educare.or.kr)

보육과정 웹사이트는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 보육과정 관련 자료실 등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 관련 내용을 목록화하여 관련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1차에서 3차까지의 표준보육과정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연령별, 주제별 보육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료실에는 '표준보육과정 이해하기' 및 '보육과정 온라인 컨설팅' 영상이 업로드되어 회원가입없이 영상을 볼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 쉽게 이해하기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과정 운영 이해



보육과정 온라인 컨설팅

• 표준보육과정 적용을 위한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
• 보육과정 영역별 활동실제(40개 활동실제) 영상



표준보육과정 관련 자료

-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 보건복지부(2013). 3-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침서.
-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해설서.
- 보건복지부, 교육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보건복지부, 교육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기억해 두세요!

보육프로그램 책자는 '표준넷'에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및 해설서, 지침서 등은 모두 '표준넷'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하다.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www.표준넷.kr) ☎ 070-4333-2438











체코Czech 의 유아·보육기관 'Mateřská škola'을 가다

이전 세대에겐 '프라하의 봄'으로, 최근에는 '프라하의 야경'으로 유명한 '체코(Czech Republic)'는 동유럽국가 중 최고 생활수준과 높은 문화수준을 유지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보육·육아정책에 있어 늘 동경의 대상인 '북유럽'에 비해 우리에게 '동유럽'의 보육정책과 보육기관은 다소 낯설다. 그렇다면 체코의 보육기관은 어떤 모습이고, 영유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체코의 보육기관인 '마테르쥐스카 쉬콜라(Mateřská škola)'를 통해 체코의 보육을 잠시 들여다보자.

*출처: 2017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해외보육정책연수 결과보고서

프라하 1구 어린이집(Letenska 120)

'프라하 1구 어린이집'은 프라하 1구의 유아교육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총 3개반에서 유아 70명이 생활한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로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놀이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연령에 따라 미술활동, 건강한 생활습관교육(체육활동, 식습관지도, 영양관리), 축제활동(할로윈,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어머니의 날 등), 연극 공연, 야외 소풍 등의 활동이 있다. 또한 취학 전 연령 대상으로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문자학습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전에는 어린이집의 주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오후 시간에는 특별활동 위주로 진행되는데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주로 음악, 영어, 노래, 플루트연주, 도예 등의 특별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프라하 1구 어린이집'은 물리적 환경이 우수하다. 교실, 침실, 탈의실, 식당, 체육관 외에도 2,000㎡ 이상의 전용 정원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교육심리 상담사, 임상언어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프라하 2구 어린이집(MS, Praha 2, Na Smetance)

'프라하 2구 어린이집'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총 120명의 원생과 8명의 교사, 5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병설유아교육기관이다. 총 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의 담임교사는 오전근무 교사와 오후근무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장애아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을 위한 전문교사 외 보조교사 1명을 더 배치하고 있다.

〈어린이집 일과운영〉

시간	내용	비고
07:00~09:00	등원 및 자유놀이	통합보육
09:00~10:30	오전 간식 및 교육활동	
10:30~12:00	산책 및 실외활동	
12:00~13:00	점심시간	
13:00~14:00	실내자유선택활동	
14:00~15:00	낮잠	
15:00~17:30	오후 간식 및 실내·외 활동/ 귀가	통합보육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신체, 정신, 상호작용, 사회문화, 환경 5개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장애아동, 다른 모국어를 가진 아이들의 통합을 위한 수업,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연 3회 실시하며 보통 9월말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문화행사가 있는 경우 초청행사를 지원한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와 부모와의 면담이 이루어지며, 입학초기 또는 부모가 원하면 상시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현관에 게시하는 것이 필수이며, 국가지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는다.

교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별도로 근무하기보다 일과운영을 고려하여 등·하원시간 등 통합보육이 가능한 시간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원장이 직접 교실에 들어가 보육하기도 한다. 교사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주31시간 교육을 하고 나머지 9시간은 교육준비 등에 할애한다. 교사의 재교육은 의무사항으로 1년에 한 번은 의무교육을 받되, 프로그램은 원장과 교사가 선택하여 실시하며, 비용은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깜짝! 정보

체코는 유급 출산휴가가 28주이고, 육아휴직기간도 최대 3년까지 가능함에 따라 대부분 2세까지는 가정양육 위주이고,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결합한 형태인 'Mateřská škola'라 불리우는 보육기관을 다닌다. 영아는 보건부에서, 유아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만2세 이하 영아를 위한 탁아소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지 않아 2020년부터 Mateřská škola 입학 연령을 낮추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에서 '아동권리존중'으로,

보육교사 아동인권을 마주하다

'인권(人權)'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권리(權利)'란 법률상으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인권이란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하늘이 준 당연한 요구이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아동인권을 마주해 보자.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 그럼 지금은?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식했다는 17세기 이전의 사고에서 21세기인 지금 우리의 아동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예전보다 생활수준이나 교육수준은 분명 높아졌는데, 끊임없이 제기되는 아동학대와 아동 관련 범죄의 급증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두 돌배기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식판을 엎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이불로 얼굴을 덮는 행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이 천명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처럼 아동인권을 위해 세계가 함께 약속한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이 가진 의무이기 때문일 것이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 – 모든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6년 기준)이 가입되어 있다. 총 40개의 권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이다.

생존권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참여권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 옹호(www.unicef.or.kr/education)

어린이집에서 아동인권 존중하기

어린이집 하루일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권리'를 실천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간식과 식사, 낮잠을 제공하는 것은 '생존권'과 연결되고, 외부의 위험요소와 안전에 유의하는 것은 '보호권'에 해당한다. 자유선택활동과 다양한 보육활동은 '발달권'이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참여권'이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야 한다는 '생존권'만 강조하여 아이들의 의사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참여권'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아동학대의 이유는 방대하고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하루일과 속에서 우리는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아동권리를 실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는 11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사실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가정이다. 아동학대 의심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아동학대를 신고하자.

〈아동학대 신고 요령〉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
- 아동학대 의심사항 확인
- 응급상황 시 아동안전 우선확보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한 많은 정보 파악 후 즉시 신고
-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 전달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go.kr/new/).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안내서

인권존중 및 실천은 영유아기부터

영유아 인성교육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 인권교육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권 관련 그림책을 살펴보면 나와 다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수다. 이는 표준보육과정 속의 사회관계영역과 또한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미 어린이집 하루일과 속에서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하세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 옹호(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go.kr/new/)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https://library.humanrights.go.kr/)

어린이 인권 관련 그림책



A.H.벤자민(2003). 꿈꾸는 작은 오리. 웅진출판



김성미(2017). 돼지꿈. 북극곰



백희나(2017). 알사탕. 책읽는 곰



앤서니 브라운(2011). 기분을 말해 봐! 웅진주니어

작지만 확실한 행복小確幸 그곳 어린이집

2018년 트렌드 '소확행(小確幸)'은 어린이집 일상 그대로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은 무라카마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 등장하는 말로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등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여다보니 어쩐지 '어린이집'이 떠오른다.
매일 똑같은 일상, 간식과 점심, 낮잠, 자유놀이, 실외놀이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하루에 보육인들은 때론 지치고 때론 바쁜 일과 속에서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전해 준 비뚤빼뚤 편지, 아침마다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 매일 읽어주는 동화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의 눈빛에서 보육인들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맛본다.

'2018 우리들의 보육 이야기 공모전'의 주제는 '즐거운 어린이집, 슬기로운 보육생활'이다. 아이들 때문에 웃고 울던 선생님의 사연과 교사로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보육인들의 이야기가 409편 글과 그림 속에 묻어난다. 오늘도 묵묵하게 어린이집을 지키고 있는 모든 보육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 속에서 '소확행'을 느껴보길 바란다.



시 詩

어린이집 가는 길

정 진 아
서울 은평구 구립대조어린이집

알록달록 주황색 가방 메고,
어린이집 가는 길
오늘은 어떤 놀이할까?
콧노래 부르며 달려가는
어린이의 어린이집 가는 길

신나하는 아이와 손 꼭 잡고,
어린이집 가는 길
오늘은 무엇 하며 놀까?
이야기 나누며 함께 가는
부모님의 어린이집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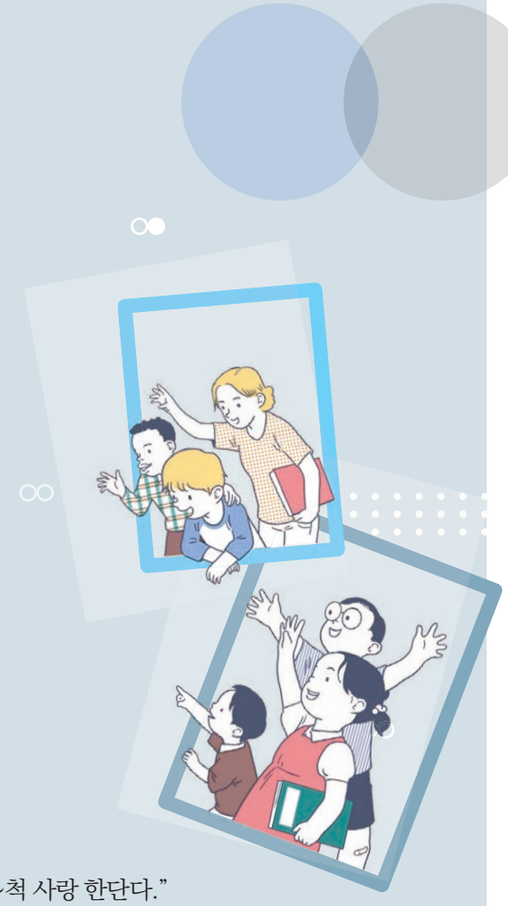
수업자료 가득한 가방 메고,
어린이집 가는 길
오늘은 더 신나게 놀자!
다짐하며 당차게 걸어가는
선생님의 어린이집 가는 길



시 詩

나는야 전문 통역사

이재숙
강원 원주시 원주세브란스어린이집



토익, 토플, 텝스 만점자 부럽지 않는
나는야 전문 통역사

"따 마 헤효."
"딸기를 좋아하는 구나. 그래 많이 줄게."

"냐 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놀이하자!"

"난나 뿌까 맘마 까뚜."
"엄마가 보고 싶었구나? 이리와 꼭 안아줄게."

"샌니 조하 샌니 사?"
"선생님 좋아해줘서 고마워. 선생님도 너를 무~척 사랑 한단다."

"샌니 치 이크 꽈다."
"아~ 친구가 밀어서 이렇게 꽈다당 넘어졌구나? 에구 아팠겠다. 호~"

세상 어느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언어
그 언어를 통역하는 나는야 전문 통역사
나는 영아반 보육교사

시 詩

너란 아이

오재롱
서울 노원구 서머힐어린이집



주말 지내고 온 너는 오늘도
어김없이 어린이집이 싫다고 한다.

식사시간이면 너는 오늘도
먹기 싫다며 밥풀로 놀이를 한다.

자유놀이를 하던 너는 오늘도
'다 내 거야'라며 울기 시작한다.

실외활동 시간에 너는 오늘도
'이거 뭐야?'를 수십 번 묻는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쯤 쉬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던
네가 아프다는 연락을 보내왔고
난 네가 걱정이 되어 가슴이 미어진다.

그렇게
너란 아이는 어느새 내 마음에 살고 있었구나.

한 교실 두 교사

이인예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어린이집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번 올림픽에서 '컬링'과 '스피드 스케이팅'은 상반된 팀워크를 보여 화제가 되었다. 스포츠에서 팀워크가 중요하듯 보육 현장에서도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2017년 열매반. 두 명의 교사가 반을 맡게 되었다. 한 교사는 현 직장에서 경력 7년차이고 또 한 명의 교사는 대학을 갓 졸업한 초임인 직장생활 새내기였다.

> 66
> 교사 생활에 관한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 99



part 1. 초임살이

초임만 선배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다. 선배도 초임의 눈치를 본다. 초보 선배인 나는 모든 일을 선배가 하는 것이 좋은 선배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보육 프로그램 공모전을 앞두고 나는 초임교사에게 공모전을 해야 하는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어려워하는 초임교사의 반응을 보며 나는 눈치를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초임교사가 힘들어서 일에 지치면 어떡하나, 아파서 쓰러지면 어찌할까, 잘못 해놓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다시 해야 해서 시간을 버리는 것 아닌가' 등. 나의 눈치는 잘못된 예측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그만 마음이 앞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할게요."

공모전 관련 업무를 초임교사와 함께 했으나 대부분을 내가 도맡아 하였다. 문제는 초임교사도 직접 해보지 않아 일을 배우지 못했고, 나 또한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지치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원장님께서는 선배로서 초임에게 일을 가르쳐주어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좋은 선배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느리더라도 나의 속도를 줄이며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part 2. 마법에 빠진 팬티

한번은 만 3세 유아가 대변을 참다가 변기에 가던 중 팬티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 유아가 대변 실수한 것을 처음 본 초임교사는 매우 놀랬다. 이미 수년간 생생한 대변을 접해본 나는 초임교사에게 대처방법을 이야기해주었고, 나는 유아를 씻기고 초임교사는 팬티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샤워실에서 유아를 씻기고 있는데 초임교사가 굳은 얼굴을 내밀며 "선생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씻기고 있던 유아를 마무리한 후 무슨 일인지 물었다.

"변기에……. 팬티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나의 보육교사 생활 중 팬티가 변기에 들어갔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초임교사가 팬티에 묻은 대변을 변기 물에 헹구던 중, 변기 물이 더러워져서 물을 내렸다가 아뿔사! 빨려 들어가는 변기 물 가운데 미처 팬티를 들어 올리지 못한 것이다. 초임교사는 "마법에 걸리듯 팬티가 호로록 변기 안으로 사라졌어요." 라고 했다. 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변기 속에 팬티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초임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한참을 웃었다. 애락(哀樂: 슬픔과 즐거움)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교실 두 교사'는 서로 다르기에 맞춰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알아갔다. 교사 생활에 관한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주었다. 일적으로는 선배교사인 내가 초임교사에게 도움을 주었고, 심적으로는 나를 이해해주고 따라준 초임교사가 나에게 힘이 되었다. 나와 초임교사는 즉석떡볶이를 좋아하여 종종 같이 먹는다. 즉석떡볶이는 여러 가지 재료를 냄비에 넣어 보글보글 끓여먹는 음식이다. 각자의 재료가 어울려 맛의 조화를 이루어내듯, 한 교실 우리 두 교사는 각자 다른 성향, 모습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기에 2017년 열매반을 무사히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을 것이리라.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지영
경남 양산시 예쁜어린이집

어린이집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원아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보육료는 어떻게 지원 받는지(그때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하고, 그 다음 계층은 70% 지원하는 제도였다)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싶다는 욕심에 덜컥 시작해버린 상태였다.

어린이집의 복도를 비로 쓸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첫 상담이었다.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다. 그런데 같이 온 유아의 모습에 나는 그만 경직이 되고 말았다. 첫 대면에 '아! 장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를 본 순간 내 얼굴이 굳어진 것을 보인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일단은 들어오시라 하고 상담실에서 그 아이와 눈을 마주쳤는데 아이는 눈웃음을 지으며 정말 환하게 웃는 것이었다. 덩달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다.

영준(가명)이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다섯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스미스마제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 중 한 명이었다. '다운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아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관련 자료가 방대하여 뭘 봐야할지 모를 정도이나, 상대적으로 '스미스마제니스증후군'을 검색하니 그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서 볼 것이 없을 정도였다.

너무도 막막하였다. 아무런 정보도, 지식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받아서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그냥 머리 아프게 받지 말자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내적 갈등은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영준이의 엄마는 어린이집 몇 군데서 벌써 입학을 거부당한 상태이고, 꼭 영준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간절히 말씀하셨다.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결심을 하였다. 영준이와 함께하기로….

그러나 너무 힘들었다. 몸은 자라지만, 말단부위 즉, 손과 발의 성장이 느려 툭하면 넘어지기 일쑤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 피가 나지 않는 한 다쳐서 아프다는 표현도 불가능하였다. 게다가 인지도 조금 느려서 어린이집 일과에 적응하기 힘들어하였고, 다른 학부모님의 민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내 아들과 동갑이었던 영준이에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였다. 안 될 거라고 말했던 기저귀도 네 살 때 떼고, 돌쟁이 인지수준이었던 영준이는 조금씩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다.

> 66
> 이 아이를 받아서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 99

어느 덧 영준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지금도 길거리에서 영준이를 만나면 그 녀석은 정말 큰소리로 악수를 청하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외친다.

"원장님!!"

나는 이 말을 들으며 희열을 느낀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또래들과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쁜 현대생활에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으로 그럴 수도 있고, 미처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 치료의 시기를 놓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대학에서 특수교육학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을 진학하였다. 더 잘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사회'를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해야 하고,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록~~~파! 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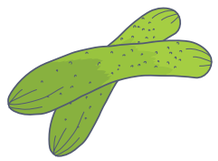
정지혜
경기 수원시 수원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나는 어려서부터 고질적인 편식쟁이었다. 맞벌이부부인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조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솜씨 좋은 손맛에 길들여져 입에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도 않으며 자라왔으니 말이다. 초임시절부터 지금까지 고치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고 있고 특히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하는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 표정연기까지 고심해가며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편식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는 걸, 우리 할머니는 아셨을까? 그저 곱고 고운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만 맛있게 차려주신 것뿐인데, 성인이 돼서까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도 때론 머쓱하고 한심스럽다. 특히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부터는 더 그랬던 것 같다.

> 66
> 나는 조금씩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중이다
> 99

나는 근래 슈퍼 이슈로 떠오른 그 야채! 오이를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는데, 그건 내가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 강력한 식습관 지도를 하시던 선생님 덕분으로 기억한다. 그 기억 때문에 나는 절대 아이들에게 먹을 걸 강요하지 않는데 한 달에 서너 번, 많게는 다섯 번씩 식재료로 들어있는 오이 때문에 곤란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우리 어린이집은 오전 간식시간 매주 한 번씩 야채스틱으로 생오이가 나오는데 오이를 보고 찌푸리는 내 모습을 아이들이 보았을까 가슴을 졸이면서도 어떻게 해야 아이들 모르게 안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던 어느 날, 우리 반 친구들도 오이스틱을 멀리 하는 게 아닌가! 그날 유독 먹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가슴을 콕콕 찌르는 죄책감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밤잠을 설쳤다.

그리고 밤잠을 설쳐가며 고심한 끝에 '초록파워'를 생각해 냈다. 친구들이 푹 빠져있는 번개파워를 '초록파워'로 만들었다. 야채 반찬을 멀리하던 친구들에게 펠트지로 만든 초록파워 망토, 초록파워 팔찌 등을 제시해주고, 골고루 맛있게 잘 먹은 친구들과 초록파워로 변신하기도 하고, 일과 중에 종종 초록파워 놀이를 하기도 하고 초록파워는 어떻게 해야 충전이 될까 함께 생각도 해보며 하루하루 '초록맨' 놀이에 심도를 더해갔다.

친구들의 반응도 성공적이었고, 특히 번개파워 주제가를 개사한 '초록파워' 노래는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여기저기 식습관 지도로 인한 아동학대가 터져 나오는 시점으로 억지로 먹이기보다 친구들과 야채를 먹으면 느껴지는 맛이나 먹고 났을 때 느낌 같은 것을 이야기해 보며 식습관 지도를 해주는 것에 부모님들도 크게 만족하셨다.

물론 그를 통해 가장 많이 변한 건 교사 자신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초록파워를 외치려면 함께 맛보아야 했으니 말이다. 나는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중이다. 교사의 기본생활습관은 거울이 되어 아이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결정적 시기, 우리마저 놓아버린다면 누가 되돌려 줄 수 있을까?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자 가장 따듯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 초록파워 선생님은 오늘도 친구들과 외친다! 초록~~~파! 워!

파 두 뿌리, 감자 세 개

황여민
부산 기장군 고촌어린이집

1999년 부산 해운대구 우동… 그 동네는 좋은 아파트도 많았지만 바닷가 주변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집 또한 많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출근한 새내기 초보였던 저는 여섯 살 빨강반 아이들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66
> 민석이의 마음이 파 두 뿌리와 감자 세 개에 고스란히 전해져 와서…
> 99

우리 반에는 며칠씩 결석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는데 대부분의 결석 이유가 해외여행이었고, 다녀 온 이후는 모둠 자리에 앉아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거나 작은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기에 아이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면 마냥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상대적으로 한부모, 조손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가 제일 작고 장난꾸러기인 돌담집 민석이라는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민석이는 엄마, 아빠가 계셨지만 할머니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도보로 걸어가는 친구들을 데려다주는 길에 나비도 보고 바람도 느껴보다가, 나무 밑에 기어가는 개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 둘 친구들은 학원이며 집으로 돌아가고 민석이와 저는 마지막 돌담 집 대문 앞에 도착합니다. 가끔씩 혼자 들어가기 싫을 때면 마당에 잠시 들어오라고 씨익 웃으면서 말하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신학기를 보내고 나니 어느덧 스승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 저보다 먼저 온 아이들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부모님들께서 챙겨 보내신 선물들을 꺼내들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며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등원하는 많은 친구들이 스승의 날이라며 손에는 카네이션 또는 부모님께서 보내신 선물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교실 문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석이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등원을 하였고 제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와 보세요~!"

저를 역할놀이영역으로 데리고 가더니 가방에서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싸온 무언가를 꺼내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뭐야?" 라고 묻자 여섯 살 작은 아이는 "선생님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신문지와 테이프로 어찌나 정성스럽게 포장했는지… 신문지 세 겹을 벗겨내자 그 속에는 '파 두 뿌리와 작은 알감자 세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친구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주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자기도 무엇인가는 주어야 한다는 마음이었는지, 신문지로 꽁꽁 싸매 온 선물을 제 손에 올려주고는 아주 신이 나서 자유선택활동을 하러 가더라고요. 저는 민석이의 마음이 제 손에 쥐어진 파 두 뿌리와 감자 세 개에 고스란히 전해져 와서 한동안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1999년 그 해 스승의 날이 떠오릅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만큼의 큰 사랑이 담긴 선물을 또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구멍 난 양말 신은 나는 부자다

이경희
경기 남양주시 예꼬어린이집

언제부터인가 나는 예쁜 동물 캐릭터 양말만 보면 사들이는 습관이 생겼다. 아마도 7년 전 내가 보육교사의 길을 처음 걷던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신입 원아들의 적응이 끝나갈 무렵인 4월이었지만 감기로 다시 적응을 하게 된 아가, 낮잠 시도를 하며 우는 아가들로 어린이집은 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었다. 신기한 것은 울던 아가들이 내 양말에 있는 토끼그림에 반응하며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이었다.

> 66
>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줄게~ 울지 마. 선생님~
> 99

그 때부터 난 토끼, 원숭이, 양, 곰, 공룡 등 아가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 그림이 그려진 양말은 모두 사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예쁜 양말들은 얼마가지 않아서 발가락이 쏙 나올 만큼 구멍이 나고야만다. 분명 아침엔 멀쩡했던 양말이 오후엔 구멍이 나 있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발바닥이 땀이 나게 움직여야 하는 나는 어린이집 만2세 보육교사이기 때문이다.

3년 전쯤 이었을까? 추운 겨울이었던 그날도 양말 사이로 어김없이 삐져나온 발가락을 보며 난 양말 앞을 여미고 있었다.

보고 있던 지윤이가 "선생님! 왜 그래요?" 하고 물었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여 "잉잉잉~~ 어떡해? 양말에 구멍이 났네! 아이 추워! 내 예쁜 곰돌이 귀가 안 보여~" 하고 우는 시늉을 했다. 보고 있던 지윤이는 "선생님! 울지 마~ 내가 사줄게~" 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양말 사려면 돈 있어야 하는데?" 하며 웃음을 뒤로한 채 또 다시 물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줄게~ 울지 마 선생님~" 하고 말하는 지윤이를 "그래~ 선생님 이제 안 울게~ 고마워~" 하며 지윤이를 꼭 안아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윤이 가방 속에서 낙서가 되어있는 커다란 어른 양말 하나가 있는 걸 발견하고는 지윤이 어머니께 '어머니~ 어머니 양말 같아서 가방에 다시 넣어 보내드려요~'라는 메모와 함께 돌려보냈다. 그날 지윤이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어젯밤 지윤이가 엄마 양말을 꺼내더니 곰을 그린다고 낙서를 해서 혼냈는데 그걸 거기 다 넣었나 봐요~ 왜 그랬냐고 물어봐도 얘길 안하더니~" 하시면서…. 전 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며 어머니와 나는 하하 호호 웃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간다.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틈 없이 아가들과 지내며 10분 만에 허겁지겁 밥을 먹어야 하는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내겐 늘 선생님을 생각해주는 우리 천사들이 있기에 행복한 오늘이다.

"선생님! 목 아파? 내가 호~ 해 줄게", "선생님! 마음이 아파? 내가 밴드 붙여줄게~" 하는 소리가 귓가에 기분 좋게 맴돈다. 오늘도 나는 엉덩이에 붙은 밥풀을 떼고 땀에 젖어 꼬불거리는 앞머리를 쓸어내리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리고는 또 구멍 난 양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쳐본다. '구멍 난 양말 신은 나는 평범한 보육교사이지만, 우리 선생님이 제일이라며 선생님은 내가 지켜준다는 우리 천사들이 있기에 나는 부자다'라고.



내 생애 최고의 케이크

한지혜
서울 종로구 혜화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늘 아이들의 생일을 챙기고 생일카드를 만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풍선을 불어 교실을 꾸며주고 부모님이 낳아 이렇게 키워주시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요. 그러다보면 어느새 교사인 '나의 생일'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선생님들이 조촐히 축하를 해준다거나 혹은 퇴근 후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나면 하루가 금방 지나버리지요. 생일의 여운을 느낄 새 없이 말입니다.

> 66
> 각자의 마음을 담아 켜켜이 쌓아 올린 단 하나의 나를 위한 생일케이크
> 99

낙엽이 아름답던 10월의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10월에 태어난 아이들의 생일잔치가 끝난 후 일곱 살인 우리 반의 한 아이가 제게 물어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케이크를 좋아해요?" 갑작스런 질문에 나의 케이크 취향(?)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 "생크림 케이크?"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보름이 지나 교사인 '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하여 하루의 할 일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활동을 준비하는데 묘하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랄까요? 속닥속닥, 수군수군. 무언가를 조심스레 준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또 어떤 장난일지 이 장난꾸러기들의 속셈을 또 어떻게 알아차려야하나 고민하던 그때,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갔다 와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교실 아니면 선생님은 갈 곳이 없는데" 라고 말하자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세요." 라며 두 명, 세 명의 아이들이 합심해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순간 '탁' 소리와 함께 암전된 교실. 정전인가 싶어 깜짝 놀라 반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반 아이 두 명이 나와서는 "선생님, 이제 들어가도 돼요. 근데 눈 감고 저희 손잡고 들어오세요." 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쿵쿵 의자를 끌고 오는 소리와 키득키득 웃음을 참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기대 반 걱정 반 마음이 두근거리던 그 순간, 옛 어느 프로그램의 '안대를 벗어주세요' 와 같이 느껴질 때 이제 눈을 떠도 된다던 아이들의 말에 눈 뜬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얀 요거트 통에 '선생님 생신 축하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우리를 잊지 마세요' 등등… 각자의 마음을 담아 켜켜이 쌓아 올린 세상에 단 하나뿐이자 나를 위한 생일케이크가 눈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이면지를 활용한 고깔모자, 색종이를 정성스레 접어 만든 꽃 생일카드까지. 너무 놀라 어떻게 내 생일을 알았냐고 물으니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달력을 보고 알았다고 하더군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벅차오르던 그때, 지금 생각해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생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 일이 고되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힘들고 벅찰 때도 있습니다. 심신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을 위한 소중한 마음을요. 교사인 저는 그 마음을 다시 담아 다음 해의 아이들, 또 그 다음 해의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겠지요? 이제 저 케이크의 주인공들은 올해 초등학생이 되었네요. 함께한 시간동안 무한히 받았던 그 사랑들을 온전히 담아 그 아이들의 시작을 응원하려 합니다. '푸른들반, 초등학생이 된 걸 정말 축하해!'



숨겨둔 내공

오현경
서울 중랑구 배꽃어린이집



NEWS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Magazine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센터 소개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에 의거해 2003년 6월에 충청북도가 설립하고,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익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 보육정책에 관한 내용과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부모와 영유아의 행복한 보육을 위한 서비스질 향상과 수요자·공급자·정부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상호소통과 공감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육의 허브 역할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 표준보육과정 교육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집합연수 • 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관한 상담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평가인증, 보육과정, 재무회계) •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 보육교직원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 직위별, 경력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 장애아·다문화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대한 교육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공연 제공 • 열린어린이집사업 지원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가정양육 지원사업	• 부모 교육 •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운영 • 육아에 관한 정보 제공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장난감 도서관 노리마을(음성 및 옥천 분소) 운영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 예비 부모 및 조부모, 아버지 교육 등 • 자녀 양육콘텐츠 사업 등 • 행복나눔 프리마켓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상담사업	•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 아이사랑플래너 양육상담 • 센터 이용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제공 •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 센터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맘스캠프 카페 메뉴 운영 • 지역사회 협력 및 연계사업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현황 및 담당업무

구분	담당업무	직위	이름	직통번호
전체	센터업무총괄	센터장	정경진	043-239-8777
사업지원팀	사업지원총괄/평가인증/재무회계/운영위원회	사업지원팀장	김주희	043-237-8770
	가정양육/토론회/공통부모교육	수석보육전문요원	서준혜	043-231-8798
	안전교육/열린어린이집/성교육뮤지컬	보육전문요원	이현미	043-239-8778
	취약보육/표준보육과정/보육교직원 연수	보육전문요원	김소연	043-237-8771
	부모모니터링 단원관리/현장컨설팅	부모모니터링단 관리자	황윤미	043-231-8769
상담지원팀	상담지원총괄/아이사랑플래너/보육교직원상담	상담지원팀장	오영진	043-231-8768
	상담사업지원/보육교직원상담	상담전문요원	변은선	
	상담사업지원/가정양육상담/육아콘텐츠	상담전문요원	이윤미	
운영지원팀	운영지원총괄/센터행정회계	운영지원팀장	이은비	043-239-8777
	분소운영관리/분소운영홍보/자체부모교육	보육전문요원	이현주	043-231-8769
	시간제보육/육아품앗이/부모자녀체험	시간제보육관리자	최영주	043-231-8799
	대체교사지원/채용/교육 및 간담회/모니터링	대체교사관리자	정성숙	043-231-8775
		대체교사관리자	박정화	
	음성분소 운영/관리/홍보	책임운영요원	이은영	043-881-2282
		운영요원	유경	
	옥천분소 운영/관리/홍보	책임운영요원	김난희	043-731-2280
		운영요원	주명지	

●●● 어린이집지원사업

어린이집지원사업은 충청북도내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교직원 교육 및 컨설팅, 대체교사지원 등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 취약 보육지원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뮤지컬 | 대체교사 지원 | 부모 모니터링단 | 열린어린이집 사업

보육교직원 교육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돕고 경력 및 직위에 따른 전문교육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다양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 및 아동학대예방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2~10월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어린이집 설치부터 운영 전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집과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어린이집의 특성을 잘 살리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이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1~12월




취약보육지원

특별한 보호와 요구가 필요한 장애·다문화·영아보육지원사업을 센터가 담당하여 취약보육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으며 보다 질높은 취약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4~12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뮤지컬

어린이집 재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내용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을 진행하여 유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9월




대체교사지원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참여나 본인 결혼 등 연가,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모성보호 및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발생시 전문성을 갖춘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1~12월




부모모니터링단 & 열린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사업으로 부모모니터링 진행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열린어린이집사업으로 사업설명회 및 소모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행시기 : 2~11월




●●● 가정양육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은 영유아 가정에 대해 다양한 양육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가정에서도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체험 프로그램,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충청북도내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모 교육 | 부모-자녀 체험 | 육아 품앗이 | 센터 분소(장난감 도서관) 운영 | 시간제 보육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사업

부모 교육

영유아를 둔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로서 자질을 갖추고 자녀의 성장, 발달 및 교육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전달, 양육방법 등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2~12월




부모-자녀 체험

가족의 유대감, 공동성취, 가족간의 의사소통 기회제공으로 건강한 가정 문화 형성과 가족 간 원활한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부모와 자녀의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4~11월




육아 품앗이 *신규 사업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어린이집, 병원, 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보육교사, 보육전문가 등 육아와 관련된 물적·인적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양육자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5~12월



센터 분소(장난감도서관) 운영-음성, 옥천 *개소 예정

취학 전 영유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장난감 및 도서 대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며 가정 내 양육비용 부담 절감과 양육환경의 질적개선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음성분소 3월~12월, 옥천분소 4~12월




시간제보육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의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및 제공기관 관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1~12월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사업

충청북도 내 육아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청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생명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함께 키우는 육아 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5~12월




●●● 상담지원사업

상담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상담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가정양육 상담, 센터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상담으로 구분하여 안전보육과 행복육아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상담 | 아이사랑플래너 양육상담 | 센터 이용상담

보육교직원상담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1~12월



아이사랑플래너 양육상담

급변하는 사회와 다양한 가족 환경의 변화 속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1~12월




센터이용 상담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및 가정양육 관련 포괄적인 상담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 진행시기 : 1~12월




상담이용안내

신청 홈페이지/유선/방문 → 접수면접 → 상담진행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문 의 TEL 043.231.8768 FAX 043.239.8779
E-mail cbedu108@cbeducare.or.kr
홈페이지 http://chungbuk.childcare.go.kr
※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사전예약시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야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약도 및 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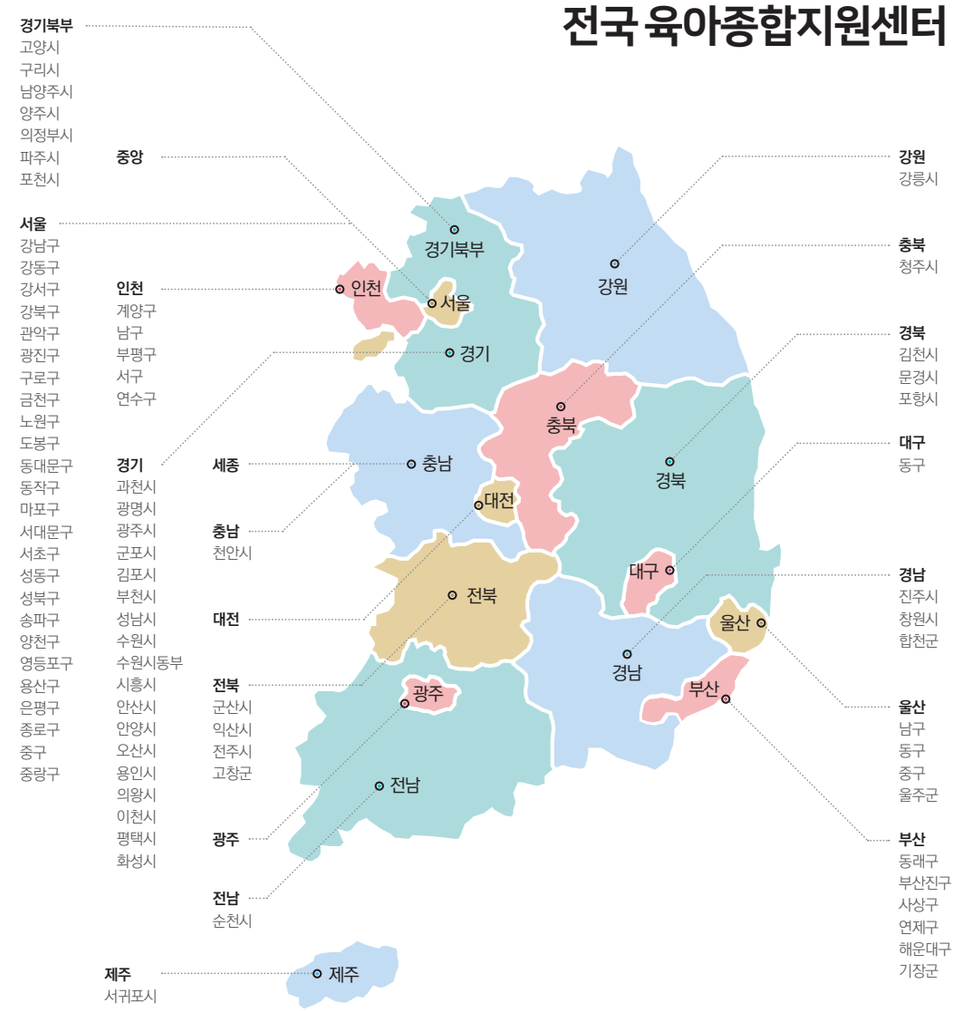
교통편

도보 산업단지 육거리에서 기상대, 세무서 방면 770m 이동 → 기상대 사거리에서 좌측 횡단보도 이동 → 우측 횡단보도 이동 → 직진 도보 163m

승용차 솔밭공원 육거리에서 오시는 분
솔밭공원사거리(직진) → 자유한국당 당사 → 주차공터 옆
산업단지 사거리에서 오시는 분
산업단지육거리(우회전) →
기상대사거리(직진) → 충북소방본부 맞은편

버스 산업단지 육거리에서 서청주, 산업단지입구방면
시내버스(514, 611~617, 711~720) 승차 → 1개 정류장 이동 → 삼화전기앞 정류장 하차 → 기상대 맞은편 도보 300m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전국 18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81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10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번호 : 1577-0756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매거진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Magazine

알찬 정보와 따뜻한 감성으로 보육인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